

# SPC그룹 던킨, '고메 도넛' 라인업 확대



'몬테크리스토 도넛'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뉴웨이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메 도넛' 라인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작한 뉴웨이브 프로젝트는 가장 맛있는 도넛을 선보이 고자 던킨이 추구하는 변화와 가치를 담았다. 품질 경영 강화와 새로운 배송 시스템 도입, 다양한 제품 연구 등으로 고객이 확 달라진 던킨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던킨은 이 프로젝트로 전형적인 도넛에서 벗어나 맛은 물론 시각 적으로도 만족감을 주는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던킨은 고메 도넛을 통해 베이커리&도넛, 브런치&도넛 등 식품 카테고리 넘나드는 이색 신제품을 던킨만의 스타일로 내놓았다.

'고메'(gourmet)는 미식을 뜻한다.

현재 던킨이 판매하는 고메 도넛은 총 16종이다. 바질이 함유된 홀 랜다이즈 소스와 삶은 계란이 어우러진 '에그 베네딕트 도넛'은

플래그십 스토어 '던킨 라이브'에서 첫 번째 고메 도넛으로 출시했다.

이어 던킨 선릉역점의 시그니처 메뉴로 선보인 '브런치 도넛'은 빵가루를 입혀 튀겨낸 새로운 식감의 도넛에 계란, 샐러드, 콘치즈 등 다양한 원료를 넣어 만들었다. 직장인에게 도넛으로 즐기는 우아한 브런치 한 끼를 선사한다.

또 햄과 치즈, 딸기잼이 들어가 '단짠' 조합이 절묘한 '몬테크리스토 도넛'과 바삭한 식감의 도넛에 매콤하고 고소한 미국적인 맛을 살린 '페퍼잭 치즈도넛' 등 고메 도넛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확장 중이다.

이외에도 '크림 브뤼레 도넛', '소프트 우유 크림 도넛' 등 던킨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 도넛을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다.

고메 도넛은 던킨 라이브와 선릉역점, 건대 입구역점, 양재사옥점 등 직영점을 중심으로 판매 중이다. 긍정적인 고객 반응이 이어지면서 가맹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 현재 던킨 강남대로점을 포함한 서울, 분당 지역 총 15개 가맹점에서 판매한다.

던킨은 매월 선보이는 신제품에도 프리미엄 요소를 더했다. 영국의 여유로운 오후 티

타임을 연상하게 만드는 프리미엄 디저트 콘셉트의 '로열 밀크티 도넛'은 고소한 향미를 가진 '저지 우유'로 반죽했다.

여기에 세계 3대 홍차로 유명한 '우바 홍차'로 만든 밀크티 글레이즈를 듬뿍 입혔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도넛의 식감과 달콤한 밀크티의 풍미를 선사한다.

SPC그룹 던킨 관계자는 "올해 던킨은 가장 맛있는 도넛을 만들고자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며 "뉴웨이브 프로젝트로 탄생한 고메 도넛으로 고객에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도넛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